

“원주~강릉철도 지역업체 참여 늘려달라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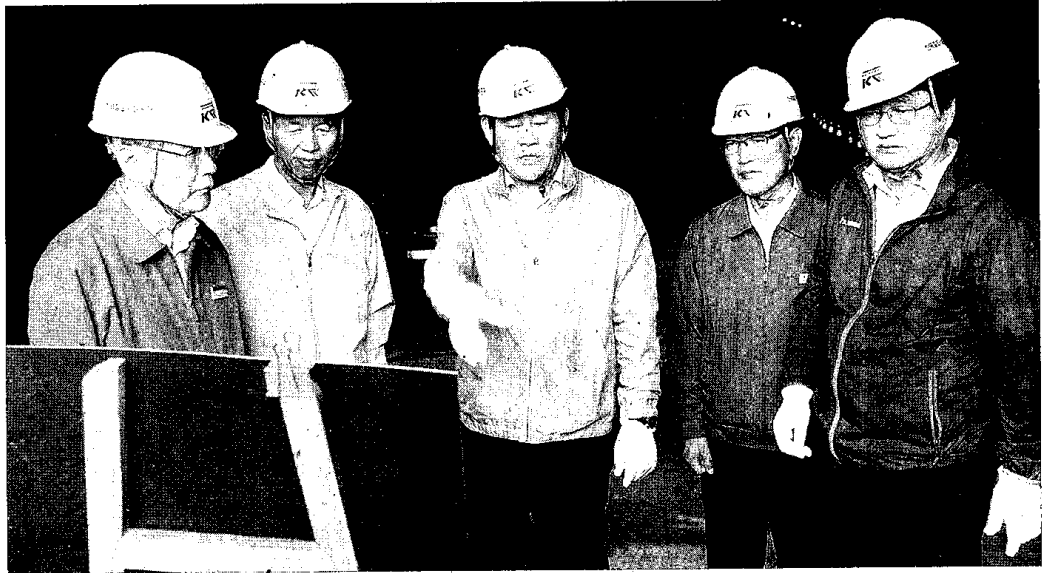
최경환 부총리 원주 현장 방문

지역경제 ‘실질적 도움’ 강조
“3조원대 투입 대역사(大役事)”
차질 없는 사업 추진 거듭 당부

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원주~강릉 복선전철 공사현장을 찾아 “국내 단일 SOC 사업 예산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최 부총리는 이날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원주~강릉 복선전철 공사 제1공구 현장 종합상황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“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이 뒷받침되는 만큼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”고 당부했다.

이어 “원주~강릉 복선전철 공사는 추경 예산 2,920억원이 투입돼 올해만 1조2,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집행된다”며 “강원도 발전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위해 3조8,00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(大役事)”라고 했다. 특히 최 부총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,



◇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원주시 호저면 원주~강릉 복선전철 소막골터널 건설현장에서 최문순 지사, 원창목 시장 등과 함께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. 원주=오윤석기자

최정환 강원본부장 등과 (주)한양 등 11개 공구 시공사 대표자들에게 “하도급, 자재 공급 등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의 기틀을 만들겠다”며 “노동 분야 등 4대 개혁을 성공해야 국민소득 3만~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
최문순 지사는 “원주~강릉 복선전철 사업이 광복 이후 도내 첫 철도 신설 사업”이라며 “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 경원선 철도사업과 함께 뜻깊은 사업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.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 일행은 1공구 소막골 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 원주=유혁렬기자

“원주~강릉철 사업 지역과 상생해야”

최경환 부총리 원주 방문... 지역업체 이용 주문

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오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‘원주~강릉 철도 건설 제1공구 종합상황실’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원창목 원주시장, 한국철도관리공단 강영일 이사장,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원주~강릉 철도 건설 성공 추진을 위한 간담회’를 가졌다.

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“원주~강릉 철도 건설 사업에 올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

이 투입된다”며 “이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예산 투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을 조기 완료해 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이어 “공공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지역 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”며 “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 자재 납품에 문을 활짝 열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
최문순 도지사는 “해방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지역 업체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”이라며 “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역 업체 및 자재 사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달라”고 요청했다.

원창목 시장은 원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법인세·재산세 감면혜택 연장과 원주천 저류지 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.

원주/정태욱 tae92@kado.net